

## 제1권

1. 무사 여신. 무사 여신은 제우스의 딸로 시가의 여신이다. 호메로스에서 이미 복수형이 나타나고, 그 수가 9명이란 말이 나오지만 (『오뒷세이아』 24권 60행 참조), 그 이름들은 언급되지 않는다. 여신 또는 여신들은 시적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주므로 서사시인은 으레 서사시의 맨 첫 행에서 여신에게 도움을 청한다. 『오뒷세이아』에서는 1~10행까지 이에 해당한다.
2. 아킬레우스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 참조.
3. 아카이오이족(Achaioi)은 트로이아 전쟁 때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으로, 주로 그리스 북부지방에 거주했으나 펠로폰네소스(Peloponnesos) 반도의 여러 지방과 이타케섬 일대 그리고 크레테 섬에도 거주했다. 이 이름은 ‘아르고스인들’, ‘다나오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호메로스에서는 대개 ‘그리스인들’이란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4. 하데스에 관해서는 ‘주요 신명’ 참조
5. 아가멤논. ‘주요 인명’중 아트레우스 참조
6. 아폴론. ‘주요 신명’ 참조
7. 아가멤논.
8.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 ‘주요 인명’ 중 아트레우스와 헬레네 참조.
9. 프리아모스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 참조.
10. 올림포스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 참조.
11. 당시 그리스의 베틀은 세로로 길게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로 길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베틀 짜게 되어 있었다.
12. 아르고스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 참조.
13. 크뤼세(Chryse)와 킬라(Killa)는 소아시아 트로아스(Troias) 지방의 해안 도시들이다.
14. 테네도스(Tenedos)는 트로이아 서남쪽 트로아스 지방 앞바다에 있는 섬 및 그 수도다.
15. 스민테우스(Smintheus)는 ‘들쥐들을 몰아내는 신’이란 뜻으로 아폴론의 별명 중 하나다.
16. ‘다나오스 백성들’은 호메로스에서는 대개 ‘그리스인들’이란 넓은 의미로 쓰이지만 원래는 기원전 1500년경 이집트에서 망명해온 아르고스 왕 ‘다나오스의 신하들’이란 뜻이다. 다나오스는 쉰 명의 아들을 가진 형 아이킵토스에게 위협을 느껴 쉰 명의 딸을 데리고 그들의 선조 할머니 이오의 고향 아르고스로 망명하지만, 아이킵토스의 쉰 명의 아들들이 뒤따라와 그의 딸들과의 결혼을 요구한다. 다나오스는 가까운 친족이 우선권을 갖는 당시의 결혼 관습에 따라 마지못해 결혼을 승낙하지만 첫날밤에 모조리 남편을 비수로 찢러 죽이라고 딸들에게 명령한다. 그리하여 다나오스의 딸들(Danaides)은 아버지가 시킨대로 모두 남편을 죽이지만 휘페르메스트라(Hypermestra)만이 남편 령케우스(lynkeus)를 살려준다. 그리하여 그녀는 투옥되어 법정에서 서게 되는데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개입으로 석방되고, 남편을 살해한 다른 딸들은 사후에 저승에서 깨진 독에 물을 채우는 벌을 받게 된다.
17. 포이보스(Phoibos)는 아폴론의 별명 중 하나로 ‘빛나는 자’ 또는 ‘정결한 자’라는 뜻이다.
18. 헤라에 관해서는 ‘주요 신명’ 참조.
19. 고대 그리스인들은 큰일을 앞두고 신에게 기도하며 만약 소원을 이루어주면 그 보답으로 이러한 제물을 바치겠다고 서약하는 관습이 있었다.
20. 헤카툼베(hekatombe)는 원래 ‘소 백 마리의 제물’이란 뜻이지만 호메로스에서는 가축의 수와 종류에 상관없이 ‘성대한 제물’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다.
21. 일리오스(Ilios)는 일로스(Ilos) 왕에게서 유래한 트로이아의 다른 이름으로, 트로이아란 이름이 도성(都城)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것과는 달리 도성만을 가리킨다. 트로이아 왕가의 가계에 관해서는 ‘가계도’와 ‘주요 인명’중 프리아모스 참조.

22. 아르고스인들(Argeioi)은 좁은 의미로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북동부에 있는 아르고스(Argos)시 또는 그 시에 속한 주변 지역의 주민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아카이오이족’또는 ‘다나오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인들 전체를 가리킨다. 아르고스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참조.
23. 호메로스 이후의 신화에 따르면, 예언자 칼카스(Kalchas)는 그리스군의 함대가 아울리스(Aulis)항에 집결했을 때 계속해서 역풍이 불자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딸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는 순풍을 기대할 수 없다고 예언하여 결국 아가멤논으로 하여금 딸 이피게네이아(Iphigeneia)를 제물로 바치게 한다.
24. 클뤼타임네스트라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 중 아트레우스와 헬레네 참조.
25. 전쟁이 장기화되자 그리스군은 주변의 트로이아 동맹시들을 함락하여 물자를 조달해 쓰고 전리품을 나눠 가졌다.
26. 아이아스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 참조. 여기서는 둘 중 ‘큰 아이아스’를 말한다.
27. 오뒷세우스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 참조.
28. 호메로스에서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아 인간의 힘 밖에 있거나 신에게 바쳐진 모든 사물들에 ‘신성한’이란 형용사를 쓰고 있다.
29. 이도메네우스에 관해서는 ‘주요인명’참조
30. 프티아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 참조.
31. 트로이아 전쟁의 원인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 중 파리스 참조
32. 제우스에 관해서는 ‘주요 신명’ 참조
33. 뮈르미도네스족은 펠레우스와 아킬레우스 부자가 통치하던, 아카이오이족의 한 부족으로 그들의 주요 거주지는 텃살리아의 프티아와 헬라스다. 후기 신화에 따르면, 아이아코스(Aiakos)가 다스리던 아이기나(Aiginia)섬이 역병으로 황폐화하여 그가 혼자서 살고 있을 때, 제우스가 그의 경건에 대한 보답으로 개미들(myrmekes)로 사람들을 만들어 그곳에 살게 하였는데,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뮈르미도네스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34. 아테네에 관해서는 ‘주요 신명’ 참조.
35. 팔라스(Pallas)는 아테네 여신의 별명 중 하나로 ‘창 또는 아이기스를 휘드르는 자’ 또는 ‘처녀’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36. 아이기스(Aigis)는 밤과 천둥과 번개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제우스의 방패다.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에게 만들어준 이 방패에는 백 개의 술이 달려 있으며, 보는 이를 돌로 변하게 한다는 고르고의 머리 등이 새겨져 있다. 아테네와 때로는 아폴론도 가끔 아이기스를 사용한다. 아이기스는 천둥, 번개, 폭풍 같은 기상현상을 주관하는 제우스의 권력의 상징이다.
37. 개는 파렴치를, 사슴은 비겁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38. 헥토르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 참조.
39. 페이리토오스(Peirithoos)는 익시온(Ixion) 또는 제우스와 디아(Dia)의 아들로 텃살리아에 거주하던 라피타이족(Lapithai)의 왕이다. 그는 힙포다메이아(Hippodameia)와의 결혼식에 인근 펠리온(Pelion) 산에 거주하던 켄타우로스(Kentauros 복수형 kentauroi -머리와 가슴과 팔은 사람이고 몸뚱이와 다리는 말인 반인반마의 괴물족)족을 초대했으나, 이들이 술에 취해 신부와 다른 여인들을 납치하려 하자 이들과 라피타이족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진다. 이때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던 그의 친구 테세우스(Theseus)가 라피타이족을 도와준다. 켄타우로스족은 이일로 해서 텃살리아에서 쫓겨나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거처를 옮긴다. 드뤼아스(Dryas)는 라피타이족의 한 사람이고, 카이네우스(Kaineus)는 엘라토스(땀샘)의 아들로 라피타이족의 왕이었으며 ‘아르고호 원정대’(Argonautai)의 한 사람인 코로노스(Koronos)의 아버지다. 엑사디오스(Exadios)는 페이리토오스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라피타이족의 한 사람이다.

40. 아테나이 왕 아이제우스와 아이트라(Aithra)의 아들 테세우스는 아테나이의 국민적 영웅이자 헤라클레스의 친구다. 그는 트로이젠(Troizen)의 외가를 뒤로하고 아버지를 찾아 아테나이로 가던 도중에 손님을 침대에 묶어놓고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늘어뜨려 침대에 맞추는 노상강도 프로크루스테스(Prokroustes)를 같은 방법으로 머리를 잘라 죽이는가 하면, 트레테 왕 미노스가 아테나이에 매년 또는 9년마다 미노타우로스(‘미노스의 황소’란 뜻으로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가 포세이돈의 황소에 반해 낳은 우두인신(牛頭人身)의 괴물)에게 먹힐 처녀총각 7명씩을 공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자 세 번째 공물 진상 때 그 중 한명으로 자원하여 크레테에 갔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아리아드네 공주가 준 실꾸리로 미궁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등 많은 무공을 세운다. 테세우스는 애틀케의 여러 지역을 아테나이를 수도로 하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로 만들어 아테나이가 후일 그리스 수도가 되는 기초를 다졌다. 기원전 490년의 마라톤 전투 때에는 그리스군을 위해 싸우는 그의 거대한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

41. 여기서 ‘야만족’이란 켈타우로스족을 말한다.

42. 메노이티오스의 아들이란 파트로클로스를 말한다. 파트로클로스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 참조.

43. 전령(keryx)은 일종의 수행원으로서 전쟁터에서는 전령 노릇을 하고 제물을 바칠 때나 잔치 때는 주인의 시종을 든다. 시종은 아킬레우스의 시종(therapon) 파트로클로스처럼 사적인 성격이 더 강한 수행원으로서 신분에서 그가 모시는 주인에 뒤지지 않는다.

44. ‘젯빛 바다’란 표현은 바닷물의 회백색 거품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45. 여기서 ‘바다 노인’이란 네레우스(Nereus)를 말한다. 그에게는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된 테티tm를 포함하여 모두 선 명의 아리따운 딸이 있었다.

46. 에에티온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중 테바이 c참조.

47. 테베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 중 테바이 c 참조.

48. 아폴론.

49. 포세이돈에 관해서는 ‘주요 신명’ 참조

50. 제우스.

51. 헤라와 포세이돈과 아테네가 제우스를 묶으려 했다는 이 이상한 신화는 다른 문헌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고, 호메로스에서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52. 신들 사이에서는 브리아레오스(Briareos), 인간들에게는 아이가이온(Aigaion)이라고 불리는 그는 ‘백 개의 팔을 가진 자들’(Hekatoncheires) 가운데 한 명으로 일설에 따르면 포세이돈의 아들이라고 한다.

53. 아이티오페스족(Aithiopes)은 대지의 끝, 오케아노스(Okeanos)의 흐름 옆에 산다는 전설상의 부족이다.

54. 오케아노스에 관해서는 ‘주요 신명’ 참조.

55. 호메로스에서는 배를 정박할 때 출항하기 쉽게 고물을 육지 쪽으로 돌리고 고물 밧줄을 육지에 있는 돌 같은 것에다 땀다.

56. 아폴론.

57. 제물은 인간들이 신들 또는 영웅들과 사자(死者)들에게 바치는 일종의 선물로 그 종류(가축이나 식물이나)에 따라, 그 방법(잔치에서처럼 신들과 인간들이 나눠 먹느냐 아니면 통째로 구워 바치느냐)에 따라, 그 성격(사적인 목적을 위해서나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냐)에 따라 구분된다. 과일, 꿀, 포도주, 기름, 케이크 등이 그리스의 많은 의식에서 특히 지하(地下)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는데 제단 위에 올려놓거나 태워드렸다고 한다. 가장 보편적인 제물은 신에게 가축을 죽여 바치는 것이었는데 소가 가장 훌륭한 제물이지만 양과 염소 같은 작은 가축들과 돼지를 더 많이 썼다. 가금(家禽)들도 썼지만 새나 물고기는 쓰지 않았다. 제물로 바칠 가축은 흠 없는 것으로 골랐으며 하늘의 신들에게는 밝은

색 제물을, 지하의 신들과 사자들에게는 검은색 제물을 썼다. 중요한 공공의 의식에서는 소를 제물로 쓰되 그 뿔을 황금으로 싸고 리본으로 감았다. 소는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 제단으로 호송하는데 이때 소녀가 보리와 같이 든 바구니를 들고 앞장서 인도한다. 모두들 제단 주위에 둘러서면 참가자들의 손에 물이 부어지고 제물에도 물이 뿌려진다. 참가자들은 보리를 한 움큼씩 쥐고 있다가 기도가 끝나면 제단과 제물을 향해 던진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바구니에서 칼을 꺼내 제물의 머리털을 조금 잘라 불에 던진다. 작은 제물들은 제단 위에 들어 올린 채 목을 자르지만 소는 도끼로 쳐서 동맥을 끊고 그릇에 피를 받아 제단 위에 뿌린다. 그러고 나면 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부위별로 해체한 다음 내장을 제단의 불에 구워 주요 참가자들이 먼저 내장을 맛본다. 이어서 신들을 위해 기름 조각들에 쌀 빵들을 제단의 불에 태워드리고 불길에 활활 타오르도록 그 위에 물 타지 않는 포도주를 붓는다. 나머지 살코기는 구워서 참가자들에게 배분다. 프로메테우스는 신들과 인간들이 제물의 부위를 서로 나눌 때 제우스를 속여 뼈와 기름 조각을 고르게 하고 살코기는 인간이 갖게 했는데, 이렇게 신들을 속이고 인간들에게 불까지 훔쳐다준 죄로 나중에 코카서스 산의 바위에 묶이게 된다. 잔치의 서두로서가 아니라 가축을 통째로 구워 바치는 전번제(全番祭 holocaust)는 정화 의식, 장례식, 지하의 신들 또는 영웅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 전쟁 또는 다른 위기에 직면했을 때 행해진다. 인간 제물의 흔적은 이야기 속에만 남아 있을 뿐이다.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 앞서 페르시아의 포로들이 제물로 바쳐졌다고 하며, 그리스군이 트로이아로 출항하기에 앞서 순풍을 빌고자 아울리스(Aulis)항에서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네이아(Iphigeneia)를 제물로 바쳤다는 전설은 많은 비극의 소재가 되었다.

58. ‘희석용 동이’(krater 원전 kreter). 고대 그리스인들은 동이에다 포도주에 물을 타 마셨다. 물을 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해롭고 키클롭스나 켈타우로스 같은 야만족이나 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포도주와 물의 비율은 보통 1:3 정도 였다가 후기에는 2:3으로 했다. 그럴 경우 알코올 농도는 3~8%로 생맥주의 그것과 비슷하다. 잔치 때는 그러한 동이들이 여러 개 사용되었다.

59. 여기서 ‘목소리’란 천둥소리를 말한다.

60. 헤파이스토스에 관해서는 ‘주요 신명’ 참조.

61. 신티에스족(Sinties)은 렘노스(Lemnos)섬의 가장 오래된 선주민으로 ‘도적들’이란 뜻이다.

62. 고대 그리스인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길조로 여겼다.

63. 신주(神酒)의 그리스어는 넥타르(nektar)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이 포도주가 아니라 넥타르를 마신다고 생각했다.

64. 호메로스 시대에 사용된 키타리스(kitharis)와 포르밍크스(phorminx)는 크기만 다를 뿐 기능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발현악기(發弦樂器)로, 후일의 뒤편(lyra) 또는 더 개량된 키타라(kithara)가 길이가 같은 7현으로 만들어진 데 비해, 3~5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제2권

1. 네스토르.

2. ‘아르고스의 살해자’(Argeiphontes)는 헤르메스의 별명 중 하나이다. 제우스가 아르고스 왕 이나코스(Inachos)의 딸 이오(Io)를 사랑하자 헤라가 질투심에서 전신에 눈을 가진 목자(牧者) 아르고스(Argos)를 보내 그녀를 감시하게 했는데,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지시에 따라 그를 죽인 까닭에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다.

3. 헤르메스에 관해서는 ‘주요 신명’ 참조.

4. 펠롭스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 중 아트레우스 참조.

5.튀에스테스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 중 아트레우스 참조.

6. ‘아레스의 시종’은 전사를, ‘제우스의 시종’은 왕을 말한다.

7. ‘도시의 머리’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채를 말한다.

8. 아카로스 해(海)는 소아시아 서남부 앞에 있는 에게 해의 일부다. 동풍과 남풍과 서풍의 그리스어는 각각 euros, notos, zephyros이다. 신(神)일 경우에는 대문자로 써 각각 Euros, Notes, Zephyros이다.
9. '아르고스의 헬레네'(Argeie Helene)란 원래 헬레네가 아르고스 여인이라고 해서 트로이아인들이 붙인 이름이었으나 나중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10. 테르시테스(Thersites)는 트로이아 전쟁에 참가한 그리스군 중에서 제일 못생긴 사내였는데, 독설가로 유명하다.
11. 텔레마코스(Telemachos)는 '멀리서 싸우는 자'란 뜻으로 오뒷세우스와 페넬로페의 아들이다. 아버지 오뒷세우스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싸운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
12. 아울리스는 그리스 중동부 보이오티아(Boiotia)지방의 항구로 에우보이아(Euboia)섬의 칼키스(Chalkis)항 맞은편에 있다. 그리스군은 트로이아로 떠나기 전에 바로 이곳에서 집결했다.
13. 고대 그리스인들은 왼쪽보다 오른쪽을 더 좋은 방향으로 여겼다.
14. 디오메데스. 디오메데스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참조.
15. 아시오스(Asios)조원은 소아시아 중서부 튀디아(Lydia) 지방의 트몰로스(Tmolos)산 남쪽에 있는 조원으로, 여기서 아시아(Asia)란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이설에 따르면 이 조원의 이름은 전설상의 왕 아시아스(Asias)에게서 유래했다고 한다.
16. 스카만드로스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 참조.
17. 아레스에 관해서는 '주요 신명' 참조.
18. 보이오티아는 그리스의 중동부 지방으로 앳티케(attike) 지방의 서북부에 있다.
19. 오르코메노스(Orchomenos)는 미니아이족(Minyai)이 보이오티아 지방에서 세운 오래된 도시로 테바이가 강성해지기 전에는 보이오티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도시였다.
20. 포키스(Phokis)는 그리스의 중부 지방으로 보이오티아 지방의 서쪽에 있다.
21. 로크리스(Lokris)는 그리스의 중부 지방으로 보이오티아 지방의 북쪽에 있다.
22. 헬라스인들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 중 헬라스 참조.
23. 에우보이아는 보이오티아 지방의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그리스에서는 크레테 다음으로 큰 섬이다. 그곳 주민들이 아반테스족이다.
24. 고대 그리스에서는 물푸레나무 끝에다 청동 날을 박아 창으로 썼다.
25. 카파네우스(Kapaneus)는 히포노오스(Hipponoos)의 아들로 '테바이를 공격한 일곱 사람'중 한명이다. 그의 아들은 스테넬로스(Sthenelos)다.
26. 아드라스토스(Adrastos) 완전 Adrestos)는 탈라오스(Talaos)의 아들로 아르고스와 시퀴온(Sikyon)의 왕이다. 그는 이른바 '테바이를 공격한 일곱 사람'의 우두머리로 테바이를 공격하다가 다른 장수들은 모두 그곳에서 전사했으나 포세이돈과 테메테르 사이에서 태어난 신마(神馬) 아리온(Arion)의 빠른 걸음으로 혼자 도주할 수 있었다. 그는 후일 일곱 장수들의 아들들 이른바 '후예들'(Epigono)을 데리고 가서 테바이를 재차 공격하여 함락했으나 이번에는 그의 아들 아이기알레우스(Aigialeus)만이 혼자 전사하자 슬픔을 못 이겨 귀향 도중에 죽었다. '주요 인명'중 디오메데스 참조.
27. 아이기알로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북쪽 해안 지대로 후일의 아카이아(Achaia) 지방에 해당한다.
28. 라케다이몬과 스파르테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 참조.
29. 알페이오스 강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중 엘리스 참조.
30. 트라케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 참조.
31. 타뮈리스(Thamyris)는 무사 여신들에게 노래 시합을 자청했다가 패하여 장님이 된 트라케의 전설상의 가인이다.

32. 키타리스에 관해서는 제1권 주64참조.
33. 킬레네(Kyllene)는 a)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아르카디아와 아카이아 지방 사이에 있는 최고봉 2,376미터의 높은 산이자. b)엘리스 지방에 있는 항구를 말한다.
34. 아르카디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중앙에 있는 내륙 지방이다.
35. '포도숫빛 바다'는 해석이 엇갈리는 표현 중 하나로, 해뜰 무렵이나 해질 무렵의 넘실대는 바다를 볼 수 있는 검붉은 색깔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36. 엘리스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 참조.
37. 에페이오이족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중 엘리스 참조.
38. 둘리키온은 이타케의 남동쪽에 있는 섬으로 지금의 마크리(Makri)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9. 에키나이 군도(Echinai)는 그리스 중서부 아카르나니아(Akarnania)와 아이톨리아(Aitolia)지방 사이를 지나 이오니아 해로 흘러드는 아켈로오스(Acheloios)강의 하구 앞에 위치한 9개의 작은 섬들이다.
40. 케팔렌인(Kephallen 복수형 Kephallenes)들은 지금의 케팔레니아(Kephallenia) 섬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사에(Same), 이타케, 자퀀토스(Zakynthos), 둘리키온 섬들과 그 맞은편 본토의 일부에 거주하던, 오뒷세우스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41. 아이톨리아는 그리스의 중서부 지방이다.
42. 멜레아그로스는 오이네우스(Oineus)와 알타이아(Althaia)의 아들로 클레오파트라(Kleopatra)의 남편이다.
43. 크레테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 참조.
44. 에뉴알리오스(Enyalios)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별명 중 하나로, 그의 동반자인 전쟁의 여신 에뉴오(Enyo)에서 유래했다.
45. 헤라클레스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 참조.
46. 로도스는 소아시아 카리아(Karia)지방 앞바다에 있는 섬이다.
47. 셀레에이스(Selleeis) 강은 a) 엘리스 지방에 있는 강이자, b)소아시아 트로아스 지방에 있는 강이다.
48. 에튀라는 a)코린토스(Korinthos)의 옛 이름이자, b)엘리스 지방을 흐르는 셀레에이스 강변에 있던 아우게이아스(Augeias) 왕의 거주지로 독초(毒草)로 유명한 곳이다.
49. 쉬메는 소아시아의 카리아 해안과 로도스 섬 사이에 있는 섬이다.
50. 코스(Kos)는 소아시아의 남서해안 앞바다에 있는 섬이다.
51. 칼뤼드나이 군도(Kalydna nesoi)는 코스 섬 북쪽에 있는 섬들로 그 위치는 확실치 않다.
52. '펠라스기콘 아르고스'는 텃살리아 지방의 페네이오스(Peneios) 강변의 평야지대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펠레우스와 아킬레우스 부자(父子)가 통치하던 지역이다. '주요 지명'중 아르고스 참조.
53. 헬라스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 참조.
54. 뤼렛소스는 소아시아의 뤼시아 지방에 있던 뤼네스(Mynes) 왕의 거주지다.
55. 테베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중 테바이 c참조.
56. 필라케(Phylake)는 남 텃살리아 지방에 있던 곳이다.
57. 테메테르에 관해서는 '주요 신명' 참조.
58. '결혼은 했으나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59. 다르다니에(Dardanie)는 이테 산의 기슭에 다르다노스(Dardanos)가 세운 도시로 그 위치는 확실치 않다. '주요 인명'중 프리아모스 참조.
60. 페라이(Pherai)는 텃살리아에 있던 도시로 아드메토스(Admetos) 왕이 거주하던 곳이다. '주요 인명'중 네스토르 참조.

61. 이올코스(Iolkos 원전 Iaolkos)는 텃살리아의 마그네시아(Magnesia) 반도 안쪽 파가사이(Pagasai) 만에 있던 도시로 ‘아르고 호 원정대’의 집결지다.
62. 펠리아스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중 네스토르 참조.
63. 필록테테스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중 헤라클레스 참조. 필록테테스는 그리스군이 트로이아로 항해하던 도중에 크뤼세(Chryse)섬에서 뱀에 물려 심한 악취와 비명 소리 때문에 램모스 섬에 버려지지만, 트로이아 전쟁이 발발한지 10년째 되던 해 포로로 잡힌 트로이아의 왕자 헬레노스(Helenos)가 필록테테스의 활과 화살들 없이는 트로이아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자, 오뒷세우스와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펠레토스가 그를 트로이아로 데려간다. 그는 트로이아에 가서, 아킬레우스를 쏘아 죽이는 등 헥토르의 사후 용맹을 떨치던 파리스를 쏘아 죽인다.
64. 오이칼리아(Oichalia)란 이름을 가진 도시들은 텃살리아, 멧세네, 에우보이아 외에도 여러 곳에 있었으나, 여기서는 텃살리아의 페네이오스 강변에 있던 에우뤼토스(Eurytos)왕의 거처를 말한다.
65. 오르메니온(Ormenion)은 텃살리아의 마그네시아 반도에 있던 도시다. 휘페레이아(Hypereia)는 텃살리아의 페라이에 있던 섬이다.
66. ‘하얀 머리’란 눈 덮인 산봉우리를 말한다.
67. 아르깃사(Argissa)는 텃살리아의 페네이오스 강 가까이 있던 도시다.
68. ‘털 복숭이 괴물들’이란 켄타우로스족을 말한다. 켄타우로스족에 관해서는 제1권 주39 참조.
69. 아이티케스족(Aithikes)은 텃살리아의 서쪽 핀도스(Pindos) 산속에 살던 부족이다.
70. 키포스(Kyphos)는 텃살리아의 북동부 동명의 산 아래 있던 도시다.
71. 도도네(Dodone 라/Dodona)는 에페이로스(Epeiros 라/Epirus)지방, 지금의 드라메스코스(Drameschos)에 있던 제우스의 가장 오래된 신탁소로, 로마의 제정시대까지 존속되었으나 후일에는 기독교의 주교좌가 되었다.
72. 티타레스이오스 강은 텃살리아의 페네이오스 강으로 흘러드는 후일의 에우로포스(Europos)강이다.
73. 페네이오스 강은 텃살리아 지방에서 가장 큰 강으로 테르메(Therme)만으로 흘러든다.
74. 펠리온(Pelion)은 텃살리아의 마그네시아 반도 북쪽에 있는 산으로 최고봉 1,618미터다.
75. 그리스군의 함선들은 모두 1,186척이며, 한 척에 평균 85명씩 탔다고 보면 그리스군의 숫자는 약 10만 명쯤 되는 셈이다.
76. ‘페레스의 손자’란 아드메토스와 알케스티스(Alkestis)의 아들 에우멜로스(Eumelos)를 말한다. 페레스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중 네스토르 참조.
77. 튀포에우스(Typhoeus 또는 Typhon, Typhos)는 제우스의 벼락에 맞아 소아시아의 남동부 킬리키아(Kilikia) 지방의 아리마(Arima) 또는 아리모이(Arimoi) 지방의 땅 밑에 누워 있는 거한(巨漢)으로, 여기서는 화산(火山)의 신격화다.
78. 아이쉬에테스(Aisyetes)는 트로이아인 안테노르(Antenor)의 아버지다.
79. 바티에이아(Batieia)는 트로이아 평야의 언덕으로 지금의 가르릭(Garlik)이다.
80. 튀리네는 호전적인 여인족 아마조네스족(Amazones)의 한 사람이다.
81. 아이네이아스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 참조.
82. 젤리아(Zeleia)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중 튀키아 b 참조.
83. 페르코테는 헬레스폰토스 해협에 있던 튀시아 지방의 도시다.
84. 펠라스고이족은 그리스의 선주민으로 도도네 - 그래서 제우스는 ‘펠라스기코스 제우스’란 별명을 갖게 되었다. 텃살리아 남부지방 -그래서 이곳은 ‘펠라스기온 아르고스’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 소아시아 등지에 거주하였다.
85. 헬레스폰토스는 에게 해와 마르마라(Marmara) 해를 잇는 지금의 다르다넬스 해협으로 ‘헬레의 바다’란 뜻이다. 헬레(Helle)와 프리코스(Phrixos) 남매는 테바이 왕 아타마스(Athamas)와 구름의 여신

네펠레(Nephele)의 자식으로, 계모 이노(Ino)가 몹시 미워하자 날개 달린 황금 모피의 숫양을 타고 하늘을 날아 도망치다가 헬레는 현기증이 나서 바다에 빠져죽고 - 그녀가 빠져 죽은 바다는 그 뒤 ‘헬레의 바다’로 불렸다. - 프리코스는 무사히 흑해 동안(東岸)의 콜키스(Kolchis)에 도착하여 그곳 아이에테스(Aietes) 왕의 환대를 받는다. 그 뒤 숫양은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그 황금 양모피는 콜키스에 걸어 두고 용이 지키게 했으나 후일 이아손이 ‘아르고 호의 원정대’를 이끌고 가서 메데이아(Medeia) 공주의 도움으로 그것을 가지고 무사히 이올코스로 돌아간다. ‘주요 인명’ 중 네스토르 참조.

86. 파이오니아는 마케도니아의 스트뤼몬(Strymon)강과 악시오스(Anios) 강 사이의 지역이다.
87. 파플라고니아(Paphlagonia)는 소아시아 북부 흑해 연안 지방이다.
88. 할리조네스족은 소아시아 북부 비튀니스(Bithynis 라/Bithynia) 지방에 거주하던 부족이다.
89. 뫼시아(Mysia)는 소아시아 북서부 지방이다.
90. ‘아이아코스의 손자’란 아킬레우스를 말한다. 아이아코스는 제우스와 요정 아이기나의 아들로, 엔데이스(Endeis)와 결혼하여 펠레우스(아킬레우스의 아버지)와 텔라몬(Telamon '큰 아이아스'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된다. 그는 성격이 온후하고 경건하여 평판이 좋았다. 한번은 헬라스에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그의 기도로 가뭄이 끝났다고 하고, 또 한번은 역병이 번져 아이기나 섬이 황폐화되어 그가 혼자 살고 있을 때 제우스가 그의 경건에 대한 보답으로 개미들(myrmekes)로 사람들을 만들어 그곳에 살게 했다고도 한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뫼르미도네스족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펠레우스와 아킬레우스가 통치하던 백성들은, 호메로스에서는 바로 이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는 죽은 뒤 미노스와 라다만튀스 형제와 더불어 사자(死者)들의 재판관이 되었다고 한다.
91. 프뤼기아(Phrygia 원전 Phrygie)는 소아시아의 북서부 헬레스폰토스 해협에서 내륙의 상가리오스(Sangarios 지금의 sakarya)강에 이르는 지역이다.
92. 마이오니아(Maionia 원전 Meionie)는 소아시아의 중서부 튀디아 지방의 옛 이름이다.
93. 트몰로스(Tmolos)는 튀디아의 수도 사르테이스(Sardeis) 남쪽에 있는 산으로 최고봉 2,137미터다.
94. 카리아는 소아시아의 서남부 지방이다.
95. 튀키아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중 튀키아 a참조.

### 제3권

1. 튀그마이오이족(Pygmaioi)은 대지의 남쪽에 산다는 전설상의 난쟁이 부족이다.
2. 알렉산드로스(Alexandros)는 파리스의 별명으로 ‘남자 또는 적을 막는 자’란 뜻이다.
3. ‘돌옷을 입는다’함은 시민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여 공개적으로 추방된다는 뜻이다.
4. 스카이아이(Skaiiai)문은 트로이아 성의 서쪽에 나 있는 트로이아의 주문(主門)으로 트로이아인들은 이 문을 지나 싸움터로 나가곤 했다.
5. 아마조네스족은 호전적인 여인족으로 소아시아 북부 폰토스(Pontos) 지방에 거주했다고 한다.
6. 카스토르와 폴뤼데우케스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 중 헬레네 참조.
7. ‘대지가 꼭 붙들고 있다’함은 죽어서 땅에 묻혀 있다는 뜻이다.
8. 하테스와 그의 아내 페르세포네를 말한다. 페르세포네에 관해서는 ‘주요 신명’ 참조.
9. 크라나에 섬은 파리스가 헬레네를 트로이아로 데려가던 도중 처음 들렀던 곳으로 그 위치는 확실치 않다.
10. ‘구멍이 많이 뚫렸다’함은 가죽 끈으로 많이 묶을 수 있다는, 즉 장식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제4권

1. 아탈코메나이(Alalkomenai)는 아테네를 경배하던 보이오티아 지방의 도시다.
2. 뫼케네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중 아르고스 참조.
3. 아르고스 평야의 서부는 높이 많고 관개가 잘 되어 있었으나 동부는 메마른 편이었다고 한다.
4. ‘앞치마’라고 번역한 조마(zoma)는 허리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방어용 허리옷으로 가죽 또는 모건으로 만들어졌다. 레슬링 할 때에도 이것을 입었다.
5. 케이론은 크로노스와 필뤼라(Philyra)의 아들로 켈타우로스족의 한 명이다. 음악, 예언, 약초에 밝은 그는 아스클레피오스, 헤라클레스, 이아손,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들의 스승이다.
6. ‘싸움터의 한길’이라고 번역한 게퓌라(gephyra)는 대열과 대열 사이의 공지(空地)를 말한다.
7. 폴뤼네이케스는 오이디푸스의 아들로 에테오클레스와 형제간이다. 그는 테바이의 왕권을 찾으려고 다른 6명의 장수와 함께 테바이를 치러 갔다가 에테오클레스와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사이가 된다. ‘주요 인명’중 디오메데스 참조.
8. 아소포스(Asopos)는 보이오티아 지방의 강이다.
9. 카드모스는 포이니케(Phoinike 라/Phoenice) 지방에 있던 튀로스(Tyros)시의 왕 아게노르(Agenor) 또는 그의 아들 포이닉스(Phoinix)의 아들로, 제우스가 눈처럼 흰 황소로 변신하여 크레테로 업고 간 누이 에우로페(Europe 라/Europa)(그녀는 제우스에 의해 미노스, 라다만튀스, 사르페돈의 어머니가 된다)를 찾아 나섰다가 신탁의 지시에 따라 테베이의 구(舊)시가 및 성체인 카드메이아(Kadmeia)를 세우고 테바이인들의 조상이 된다. 그는 하르모니아(Harmonia)와 결혼하여 이노와 세멜레(디오니소스 신의 어머니)등의 아버지가 된다.
10. 에리스(Eris)는 불화(不和)의 여신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불화, 공포, 패주 같은 추상적 개념들도 신격화했다.
11. 인틸로코스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 참조.
12. 시모에이스는 소아시아 트로아스 지방을 흐르는 강으로 이데 산에서 발원하여 트로이아의 북서쪽을 지나 스카만드로스 강과 합류한다.
13. 페르가모스는 트로이아의 성체다.
14. 트리토게네이아(Tritogeneia)는 아테네 여신의 별명 중 하나로 그 어원도 의미도 확실치 않다. 이 이름의 후반부-geneia는 ‘태어나다’는 뜻이지만 전반부 trit-는 트리토니스(tritonis 리뷔에에 있는 호수), 트리톤(Triton 보이오티아 지방의 강). 트리톤(Triton 포세이돈의 아들), 암피트리테(Amphitrite 포세이돈의 아내)에서 볼 수 있듯이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 ‘물에서 태어난’이란 말이 아테네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분명치 않다. 이 이름은 ‘머리’라는 뜻의 아이올리스(Aiolis)방언 trito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아테네가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다는 신화를 호메로스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또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쌍둥이 남매 다음으로 아테네가 세 번째로 태어난 까닭에 이 이름은 세 번째란 뜻의 tritos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 제5권

1. 아르테미스에 관해서는 ‘주요 신명’참조
2. 트로스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중 프리아모스 참조.
3. 가뉘메데스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 중 프리아모스 참조.
4. 퀴프리스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별명 중 하나로 ‘주요 신명’ 참조.
5. 에니오는 전쟁의 여신으로 아레스의 동반자다.
6. 카리스 여신(Charis 라/Gratia 복수형 Charities 라/Graties)들은 제우스의 딸들로 인생에 우아함을 부여하는 우미(優美)의 여신들이다. 호메로스에서는 그 수가 일정치 않고 파시테아(Pasithea)만이 거

명되고 있으나 그들의 수는 대개 세 명으로 알려져 있다. 헤시오도스는 그들의 이름이 에우프로쉬네(Euphrosyne), 아글라이아(A히람), 탈리아(Thalia)라고 말하고 있다. 호메로스에서 그들은 아프로디테를 수행하는 시녀들로 그녀를 위해 옷을 짜주기도 한다.

7. 오토스(Otos)와 에피알테스(Ephialtes)는 알로에우스(Aloeus) 또는 포세이돈과 이피메데이아(Iphimedeia) 사이에서 태어난 거한들로, 하늘에 올라가 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올림포스 산 위에 옷사(Ossa)산을 쌓고 옷사 산 위에 켈리온 산을 쌓으려다가 제우스의 벼락에 맞아 죽는다.

8. 헤라클레스. ‘주요 인명’ 참조.

9. 파이안(Paian 또는 Paion 원전 Paieon)은 신들의 의사(醫師)로 아폴론과는 다르다. 호메로스에서 아폴론은 아직 의술의 신이 아니며, 파이안이 아폴론의 별명 중 하나가 된 것은 나중의 일이다.

10. ‘북풍’의 그리스어 이름은 보레아스(Boreas)다.

11. 헤라클레스는 아마조네스족의 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트로이아에 상륙한다. 그때 트로이아는 라오메돈 왕이 포세이돈과 아폴론에게 성벽을 쌓아준 대가를 주지 않아 이들 신들이 보낸 역병(疫癘)과 바다 괴물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라오메돈이 딸 헤시오네(Hesione)를 바다 괴물에게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제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신탁에 따라, 헤시오네가 바닷가 바위에 묶여 괴물의 밥이 되려는 순간 헤라클레스가 나타나 그녀를 구해준다. 그러나 라오메돈이 딸을 구해주면 미소년 가뉘메데스를 하늘로 데려간 대가로 제우스가 그의 아버지 트로스 왕에게 주었던 불사(不死)의 말(馬)들을 주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헤라클레스는 몇 년 뒤 12고역에서 벗어났을 때 군대를 이끌고 가서 트로이아를 함락한 뒤 라오메돈과 그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고 큰 공을 세운 텔라몬(Telamon)에게 헤시오네를 아내로 준다. 그러나 이때 라오메돈의 아들들 가운데 포다르케스(Podarkes)만은 헤시오네의 간청으로 목숨을 구하여 후일 프리아모스란 이름으로 트로이아를 통치하게 한다.

12. 호메로스는 한 명의 고르고만을 알고 있으며 그녀의 머리는 아이기스에 새겨져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고르고 자매는 스텐노(Sthenno '힘센 여자'란 뜻), 에우뤼알레(Euryale '두루 떠돌아다니는 여자'란 뜻), 메두사(Medousa 라/Medusa '여왕'이란 뜻). 이렇게 세명인데 이들은 바다 노인 포르키스와 그의 누이인 케토의 딸들로 날 때부터 백발이며 셋이서 눈 하나와 이빨 하나를 함께 쓰는 그라이아이 자매들(Graiai)의 아우들이며 오케아노스 강물 옆 대지의 서쪽 끝에 산다. 흔히 머리털이 뺨이고 무섭게 노려보는 눈을 가진 괴물들로 그려진다. 셋 가운데 유일하게 죽게 되어 있고 그 머리가 하도 무서워 보는 이를 돌로 변하게 한다는 메두사는, 제우스와 다나에의 아들 페르세우스가 아테네 여신이 준 거울을 사용하여 직접 보지 않고 그녀의 목을 쳤을 때 포세이돈의 사랑을 받아 임신 중이었는데 그녀가 죽는 순간 날개 달린 천마(天馬), 페가소스(Pegasus)와 크뤼사오르(Chrysaor '황금 칼'이란 뜻)가 태어난다. 고르고의 머리는 일종의 액막이로서 방패, 흉갑, 성문, 대문 등에 새겨졌다. 후기로 갈수록 무섭고 혐오스런 얼굴 등이 점점 부드러워지며 아름답고 우수에 찬 모습으로 바뀌더니 헬레니즘 시대에는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받는 존재로 그려지곤 했다.

13. 호라이 여신들(Horai)은 대개 계절의 여신들로 알려져 있으나, 호메로스에서는 올림포스의 구름문을 여닫는 올림포스의 문지기 여신들로서 그 수와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또 헤라의 시녀들이기도 하다.

14. 그것을 쓴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요술 모자’(Tarnkappe 또는 Nebelkappe)는 후일 북구(北歐) 신화에 자주 등장하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된 동화적 모티브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데스의 서사시적 표기인 아이데스(Aides '보이지 않는 자'란 뜻이다)라는 이름에서 나온 발상인 듯하다. 아테네가 하데스의 투구를 썼다는 말은 실제로 아테네가 그 투구를 썼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보이지 않게 했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15. ‘우라노스의 아들들’이란 티탄 신족을 가리키는 말로 티탄 신족에 관해서는 ‘주요 신명’참조.

## 제6권

1. 디오니소스에 관해서는 ‘주요 신명’ 참조.
2. 에피라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중 에피라1 참조.
3. 시쉬포스(sisyphos)는 그리스인들의 시조라는 헬렌(Hellen)의 아들 아이올로스(Aiolos)와 에나레테(Enarete)의 아들로 메로페(Merope)의 남편이자 글라우코스(Glaukos)의 아버지이다. 코린토스(Korinthos 호메로스의 Ephyre) 시의 건설자인 그는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교활하고 거리낌 없는 악당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예컨대 대도(大盜) 아우톨뤼코스가 그의 가축 떼를 훔쳐가자 발굽에 표시를 해놓았던 까닭에 되찾을 수 있었는데 그 보복으로 그는 아우톨뤼코스의 딸 안티클레이아가 라에르테스에게 시집가기 전에 그녀를 범한다. 그래서 그가 오뒷세우스의 실부(實父)라는 주장도 있다. 그는 또 제우스가 요정 아니기나(Aigina)를 유혹하는 것을 엿보고 있다가 코린토스 성채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는 조건으로 그녀의 아버지 하신 아스포스에게 그 비밀을 누설한다.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서 그에게 죽음의 신(Thanatos)을 보냈으나 죽음의 신을 그가 가뒀버려 한때 죽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죽음의 신이 다시 찾아오자 그는 아내 메로페에게 자기 시신을 묻지도 말고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일러놓고 저승에 가서는 아내를 벌주고 자기 시신을 매장하게 한 뒤 다시 돌아오겠다고 저승의 신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를 속이고 지상으로 나와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마침내 헤르메스가 그를 저승으로 데려가자 그는 돌덩이를 산꼭대기로 굴러 올리는 벌을 받게 되는데, 그가 있는 힘을 다해 돌덩이를 산위로 굴러 올리면 돌덩이가 산꼭대기에 닿으려는 순간 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이런 고역을 기약 없이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4. 키마이라(Chimaira)는 사자의 머리에 염소의 몸뚱이와 뱀의 꼬리를 가진 괴물로서 입에서 불을 내뿜어 큰 피해를 주었으나, 벨레로폰테스(Bellerophon 또는 Bellerophon)가 천마 페가소스를 타고 하늘에서 공격하여 퇴치했다고 한다.
5. 솔뤼모이족(Solymoi)은 소아시아 뤼키아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상의 부족이다.
6. 벨레로폰테스는 코린토스 왕 글라우코스의 아들로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고 티퀸스 왕 프로이토스에게 피신하지만, 그의 아내 스테네보이아(Stheneboia) 또는 안테이아(Anteia)의 구애를 거절하자 그녀는 오히려 벨레로폰테스가 자기를 유혹하려 했다고 모함한다. 그러자 프로이토스는 자신의 장인으로 뤼키아(Lykia)의 왕인 이오바테스(Iobates)에게 벨레로폰테스를 보내며 편지를 전하는 자를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준다. 그러나 이오바테스는 자신의 손님을 자기 손으로 죽이기가 꺼림칙하여 벨레로폰테스에게 키마이라를 퇴치하라고 명령한다. 그가 천마 페가소스의 도움으로 그 괴물을 죽이자 이번에는 또 이웃에 사는 호전적인 솔뤼모이족(Solymoi)과 여인족인 아마조네스족을 격퇴하라고 명령하지만, 그가 어려운 임무들을 무난히 수행하자 이오바테스는 그를 사위로 삼는다. 그는 후일 오만해져서 페가소스를 타고 하늘로 오르려다가 제우스가 그를 내동댕이치자 세상에서 버림받아 외롭고 쓸쓸한 만년을 보냈다고 한다.
7. 알레이온 들판(Aleion pedion)은 소아시아 뤼키아 지방 또는 킬리키아 지방의 들판이라고한다.
8. 시돈은 포이니케(Phoinike 라/Phoenice) 지방의 수도다.
9. 완척(Pechys)은 팔꿈치에서 가운뎃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로 약 45센티미터다.
10. 킬리키아는 소아시아의 남동부 지방이다. 그러나 킬리키아인들은 호메로스 시대에는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인 대(大) 프뤼기아에 거주했고, 그들이 킬리키아 지방으로 이주한 것은 나중 일이다.
11. 아스튀아낙스(Astyanax)는 헥토르의 아들 스카만드리오스(Skamandrios)의 별명으로 ‘도성의 왕’이란 뜻이다. 헥토르가 거의 혼자서 트로이아를 지켜주다시피 한다 하여 트로이아인들이 그의 아들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 주었다.
12. 멧세이스(Messeis)는 라케다이몬의 지방의 샘이고, 휘페레이아는 텃살리아의 페라이에 있는 샘이다.

## 제7권

1. 이아손에 관해서는 ‘주요 인명’중 네스토르 참조.
2. ‘되’의 원어는 메트론(metron)인데 그 정확한 용량을 알 수 없어 짐작으로 번역해보았다.

## 제8권

1. 타르타로스(Tartaros)는 대지가 하늘에서 떨어져 있는 만큼 대지 밑 깊숙한 곳에 있는 곳으로, 그 문과 문턱은 무쇠로 되어 있다. 티탄 신족은 이곳에 갇혀 있다.
2. 가르가룬(Gargaron 지금의 Kag Dagi)은 이데 산의 최고봉(1,766미터)으로 그곳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다.
3. ‘다른 말들’이란 명에 밑에서 전차를 끄는 두 필의 말들이고, 화살에 맞는 것은 결말이다.
4. 말 두 필 대신 네 필이 전차를 끄는 것은 호메로스 이후의 관습이므로 이 시행을 후일에 가필된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크산토스’(Xanthos ‘황갈색 말’)는 아킬레우스의 말 이름이기도 하고, ‘포다르고스(Podargos ‘발 빠른 말’ ‘준마’)는 메넬라오스의 말 이름이기도 하며, 아이톤(Aithin ‘밤색 말’, ‘구렁말’)의 여성형인 ‘아이테’(Aithe)는 아가멤논의 암말의 이름이기도 하며, ‘람포스’(Lampos ‘빛나는 말’, ‘백마’)는 새벽의 여신 에오스의 말 이름이기도 하다.
5. 헬리케(Helike)는 아카이아 지방의 해안 도시로 그곳에 포세이돈의 신전이 있었다고 한다. 아이가이(Aigai)도 포세이돈의 신전이 있던 곳으로 그 위치에 관해서는 아카이아 지방이라는 주장과 에보이아 지방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6. 에우뤼스테우스(Eurystheus)는 페르세우스의 아들인 스테넬로스(Sthenelos)의 아들로 헤라에 의해 헤라클레스보다 먼저 태어나, 그의 상전이 되어 헤라클레스에게 유명한 ‘12고역’을 시킨다. 일설에 따르면, 헤라클레스는 헤라가 보낸 광기에 사로잡혀 아내 메가라(Megara)와 그녀가 낳아준 자식을 적인 줄 알고 모두 죽인 까닭에 어떻게 하면 죄를 정화할 수 있겠는지 델포이의 신탁에 조언을 구하자, 타퀸스(Tiryns)왕 에우뤼스테우스에게 12년동안 봉사하며 그가 부과하는 12고역을 완수함으로써 불멸의 존재가 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7. 에레보스(Erebos)는 사자(死者)들이 머무는 암흑의 세계다.
8. 머리가 세 개 또는 백 개가 달렸다는, 저승을 지키는 괴물 개 케르베로스(Kerberos)를 말한다. 호메로스는 헤라클레스의 ‘12고역’중에서 이 이야기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9. 휘페리온(Hyperion)은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티탄 신족(‘주요 신명’ 참조)의 한명이지만, 호메로스에서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별명으로 ‘(우리) 위에 있는 자’ 또는 ‘고공에 있는 자’란 뜻이다.
10. 548행과 550~552행은 원래 현존 필사본들에는 없는 것을 케임브리지(Cambridge)의 고전학자 반즈(Barnes)가 약 200년 전에 처음으로 플라톤의 『알키비아데스』(Alkibiades) 149d에서 따와 삽입한 것이다. 548행은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나머지 3행은 『일리아스』의 다른 부분과의 미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트로이아의 파멸은 모든 신들이 아니라 일부 신들이 원하는 것이며, 제우스도 이 도시를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다.

## 제9권

1. ‘검은 물’이란 물 자체가 검은 것이 아니라 햇빛이 들지 않는 깊은 우물물이나 검은 암벽을 흘러내리는 물처럼 검게 보이는 물을 말한다.
2. 탈란톤(talanton)은 무게의 단위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호메로스에서는 그다지 큰 단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중에 탈란톤이라는 무게의 단위는 그리스의 여러 도시에서 서로 다르게 쓰였는데, 예컨대 아테나이에서는 1탈란톤은 약 26킬로그램이었다.

3. 이피아나사(Iphianassa). 호메로스에 나오는 이 이름은 후일 이피게네이아로 변했다는 주장도 있다.
4. 포세이돈. ‘주요 신명’ 참조.
5. 미누아이족이 세운 옛 도시 오르코메노스(Orchomenos)는 테바이가 세워진 뒤에도 한동안 보이오티아 지방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도시였다.
6. ‘아이킵토스의 테바이’에 관해서는 ‘주요 지명’중 테바이 b 참조. 이집트는 『오뒷세이아』에서는 여러 번 언급되지만, 『일리아스』에서는 여기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7. 퀴토(Pytho)는 포키스 지방에 있는 파르나토스(Parnassos 최고봉 2,457미터) 산의 남쪽 사면에 위치한, 신탁소와 퀴토 경지로 유명한 델포이(Delphoi)의 옛 이름이다. 호메로스 에서는 델포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퀴토라는 이름은 아폴론이 그곳의 샘을 지키고 있던 퀴톤(Python)이라는 용을 죽인 데서 유래한 것이다.
8. ‘지하의 제우스’란 하테스를 말한다.
9. 458~61행은 현존 필사본들에는 없으나 플루타르코스(Ploutarchos)에 의해서 이 부분에 있던 것으로 인용되었고, 1707년 네덜란드 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이곳에 삽입되었다.
10. 칼뤼돈(Kalydon) 시의 아이톨리아인들을 통치하던 오이네우스는 쿠레테스족(Kouretes)의 왕인 테스티오스(Thestios)의 딸 알타이아(Althaia 원전 Althaie)와 결혼하여 멜레아그로스를 낳는다. 나중에 멧돼지가 칼뤼돈을 쑥대밭으로 만들자 두 부족이 힘을 모아 멧돼지를 사냥하게 되는데, 멜레아그로스는 그 머리를 사냥에 공이 큰 아탈란테(Atalante)라는 소녀 사냥꾼에게 준다. 그러나 테스티오스의 아들들이 그것을 도로 빼앗자 멜레아그로스가 그들을 죽이게 되고, 그들의 누이인 알타이아가 제 아들을 저주하게 되어 두 부족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 멜레아그로스가 전투에 참가할 때는 아이톨리아인들이 우세했으나, 그가 어머니의 저주에 원한을 품고 전쟁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쿠레테스족이 칼뤼돈을 포위한다. 그는 마침내 아내 클레오파트라(Kleopatra 원전 Kleopatre)의 간청을 받아들여 전투에 참가하여 쿠레테스족을 물리치지만, 아이톨리아인 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자진하여 전투에 참가한 까닭에 그들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호메로스 이후의 전설에 따르면, 멜레아그로스가 태어났을 때 운명의 여신들이 나타나 지금 화덕에서 타고 있는 장작들이 다 타고 나면 아이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알타이아는 장작들을 꺼내어 불을 끈 다음 잘 간수하고 있었으나 아들이 자기 오라비들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장작들을 꺼내어 불태우자 아들도 죽었다고 한다.
11. 이다스(Idas 원전 Ides)는 메세네(Messene) 사람 아파레우스(Aphareus)의 아들로 마르팻사(Marpessa)의 남편이자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다. 마르팻사에 관해서는 ‘주요 신명’중 아폴론 참조.
12. 알키온(Alkyon)은 물총새의 일종이다.

### 제10권

1. ‘전쟁의 큰 아가리’란 닥치는 대로 바수어 삼키는 맹수들의 두 턱에다 비유한 표현이다.
2. 파수병들.
3. 호메로스 시대에 면도하는 풍속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유일한 대목이다.
4.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다.
5. 씬브레(Thymbre)는 트로이아 북서쪽 씬브리오스(Thymbrios) 강변에 있던 도시다.
6. 디오메데스. 디오메데스의 아버지 튀데우스는 칼뤼돈 왕 오이네우스의 아들이다.
7. ‘말들에 뛰어오르다’라는 구절은 당시에는 말 등에 타는 풍습이 없었으므로 말들이 끄는 전차에 올랐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8. ‘사랑하는 전우’란 죽은 레소스(Rhesos)를 말한다.

### 제11권

1. 티토노스(Tithonos)는 라오메돈의 아들로 프리아모스와 형제간이다.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그의 미모를 사랑하여 남편으로 삼았는데, 둘 사이에 아이티오페스족의 왕 멧논(Memnon)이 태어난다.
2. 여기서 ‘별’이란 천랑성(天狼星 Seirios 라/Sirius)을 말한다.
3. ‘바람이 길러준 창’이란 말은 창 의 자루로 쓰이는 물푸레나무가 바람 부는 산속에서 자란데서 유래한 표현이다.
4. 자연적으로 생긴 언덕이 아니라는 뜻이다.
5. 그리스는 겨울이 우기(雨期)다.
6.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살리아의 트리케와 이토메를 통치하는 마카온과 포탈레이오스의 아버지로, 명의(名醫)일 뿐 신은 아니다. 그러나 후기 신화에서 그는 아폴론과 코로니스(Koronis)의 아들로 의술의 신이다.
7. 543행은 현존 필사본들에는 없으나 아리스토텔레스(수사학)와 플루타르코스(윤리론집)의 인용에 의하여 여기에 삽입된 것이다. 그러나 다음 행과 뜻이 잘 맞지 않는다.
8. 그들이 몸을 웅크리고 나란히 붙어 섰기 때문에 방패의 아랫부분은 땅에 닿고 윗부분은 어깨에 닿아 벽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9. ‘프람네 산(產) 포도주’란 소아시아의 서해안 알바다에 있는 아카리아(Ikaria)또는 이카로스(Ikaros) 섬의 프람논(Pramnon) 또는 프람네(Pramne)산에서 나는 포도주를 말하지만 나중에는 대개 특정 종류의 포도주를 가리켰다고 한다.
10. 이 구절을 보면 헤라클레스는 전(全)그리스의 국민적 영웅이 아니라 서부 그리스에 대해서는 가혹한 억압자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1. 악토르와 몰리오네(Molione)의 쌍둥이 아들 에우뤼토스(Eurytos)와 크테아토스(Kteatos)를 말한다.
12. 그들의 실부(實父)는 포세이돈이다.
13. ‘아카이오이족’이란 여기서는 펠로스인들을 말한다.

### 제12권

1. ‘반신족’(半神族)이란 영웅족을 말한다. 영웅들이 그렇게 불리는 것은 그들의 부모 또는 선조 가운데 한쪽이 신 또는 여신이기 때문이다.

### 제13권

1. 힌페몰고이족(Hippemolgoi)은 북유럽의 스키타이(Skythai)계 유목민족이다.
2. 아비오이족(Abioi)은 먼저 트라케에, 나중에는 아시아에 거주하던 스키타이계 유목민족이다.
3. 포세이돈.
4. 여기서 사모스란 아오니아(Ionia)지방 알바다에 있는 사모스 섬이 아니라 트라케의 헤브로스(Hebros)강 하구 앞에 있는 사모트라케(Samothraïke)섬을 말한다.
5. 암피마코스(Amphimachos)는 크테아토스(Kteatos)의 아들이며, 크테아토스의 실부(實父)는 포세이돈이다.
6. 이도메네우스와 메리오네스(Meriones)는 같은 크라테 출신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도 그들의 막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7. 아킬레우스.

## 제14권

1. 암브로시아(ambrosia 원전 ambrosie)는 대개 신식(神食)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신들이 바르는 향유(香油)를 말한다.
2. 레아에 관해서는 ‘주요 신명’중 티탄 신족 참조.
3. ‘수놓은 띠’의 그리스어는 케스토스 히마스(kestos himas)다.
4. 피에리아는 올림포스 산의 북쪽 사면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산악 지방으로, 그곳 주민의 일부가 선사시대에 남쪽 헬리콘(Helikon 최고봉 1,748미터)으로 이주하면서 그곳의 무사 여신들 숭배도 헬리콘 산으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5. ‘죽음의 신’과 ‘잠의 신’의 그리스어는 각각 타나토스(Thanatos)와 휘프노스(Hypnos)다.
6. 헤라클레스.
7. 파시테아에 관해서는 제5권 주6참조.
8. 칼키스(Kalchis) 또는 퀴민디스(Kymindis)가 어떤 새인지 확실치 않다. 신이 새의 모습을 하는 데 대해서는 7권59행 참조. 신들의 말과 인간들의 말이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은 20권 74행 참조.
9. 익시온과 그의 아내 디아(Dia)사이에서 태어난 페이리토오스(1권 주 38참조)의 실부(實父)는 제우스라고도 한다.
10. 다나에는 아르고스 왕 아크리시오스(Akrisios)의 딸로, 아크리시오스는 외손자의 손에 죽을 것이라는 신탁을 듣고 다나예를 청동 탑에 가둔다. 그러나 제우스가 황금 비(雨)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접근하여 그녀가 페르세우스(Perseus 후일 아테네의 청동 거울 덕분에 직접 보지 않고도 괴물 메두사의 머리를 벤다)를 낳자 아크리시오스는 이들 모자(母子)를 상자에 넣어 바닷물에 떠내려 보낸다. 그러나 이들 모자는 세리포스(Seriphos) 섬에 닿아 환대 받게 되고, 후일 페르세우스는 라릿사(Larissa)의 경기장에서 실수로 아크리시오스를 죽이게 되어 결국 신탁이 이루어지게 된다.
11. 에우로페는 포이니케 지방에 있는 튀로스 시의 왕 아게노르(Agenor) 또는 그의 아들 포이닉스(Phoinix)의 딸로 눈처럼 흰 황소의 모습으로 접근한 제우스에게 크레테 섬으로 업혀가 그곳에서 미노스와 라다만튀스와 사르페돈의 어머니가 된다.
12. 세멜레는 카드모스의 딸로 주신(酒神) 디오니소스의 어머니다. ‘주요 신명’중 디오니소스 참조.
13. 알크메네는 암피트뤼온의 아내로 제우스에 의해 헤라클레스의 어머니가 도니다. 제우스의 애정 행각을 그린 이 ‘레포렐로 목욕’(모차르트의 오페라 Don Giovanni에서 돈 죠바니의 애정 행각을 그의 시중 Leporello가 읊어대는 장면)은 후기의 가필로 보인다. 레토 외의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는 호메로스 이후의 신화에 속하기 때문이다.

## 제15권

1. 키잡이가 앓는 의자를 말하는 것 같지 않다. 아이아스는 벌써 그곳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문맥으로 보아 뒤 갑판에서 앞 갑판으로 가는 통로인 듯하나 이 통로는 길이가 7자(원문에는 7피트)는 더 될 것이므로 선저(船底)에서 7자 높이의 통로로 보는 이들도 있는데 그 정도의 높이면 노 젓는 자들이 그 아래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6권

1. 발리오스(Balios)는 ‘얼룩말’, ‘화마’(花馬)란 뜻이다. 크산토스에 관해서는 8권주 4참조.
2. 페다소스(Pedasos)란 이름은 천마 페가소스를 연상시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나 ‘경충 뛰다’는 뜻의 페다오(pedao)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3. 모든 강은 하늘의 빗물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늘의 신인 제우스에게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필라스(Phylas)는 폴리멜레(Polymele)와 아스튀오케(Astyoche)의 아버지로, 테스프로티스(Thesprotis 라/Thesprotia) 지방의 도시 에피라의 왕이다.
5. ‘제우스 펠라스기코스’에 관해서는 2권 주 71 및 84 참조.
6. ‘제우스 이다리오스’(Idaios)는 제우스의 별명 중 하나로 이데 산의 최고봉 가르가론에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던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7. ‘신유’의 그리스어로는 암브로시아(ambrosia/원전 ambrosie)다.

## 제17권

1. 2권 488행 이하를 연상케 하는 이 두 행(260~261)은 후일 가필된 것으로 보인다.

## 제18권

1. 플레이아데스(Pleiades)는 ‘비둘기들’이란 뜻의 별자리로, 아틀라스와 플레이오네(Pleione)의 일곱 딸들이 비둘기로 변신하여 미남 사냥꾼 오리온에게 쫓겨 도망치는 것을 제우스가 별자리로 만들어 황소자리 옆에다 옮겨 놓았다고 한다. 이 별자리는 5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눈에 보이는데, 이 별들이 뜨면 항해하기 좋은 시기가 시작되고 별들이 지면, 항해하기 좋은 시기가 끝난다. 휘아테스(Hyades)는 황소자리의 머리에 있는 별자리로, 이 별들이 뜨면 그리스에서는 우기가 시작된다.
2. ‘큰곰’의 그리스어는 아르크토스(arktos)다.
3. ‘목적’의 그리스어는 쉬링크스(syrinx)다.
4. ‘리노스(Linos)의 노래’는 원래 지나가는 봄을 슬퍼하는 만가(輓歌)였으나, 나중에는 기쁜 일이나 축제 때에도 부르는 민요가 되었다고 한다.
5. 다이달로스(Daidalos)는 에우팔라모스(Eupalamos)의 아들로 이카로스(Ikaros)의 아버지다. 그는 뛰어난 장인(匠人)으로 조카 탈로스(Talos)가 뱀의 턱뼈에서 암시를 받아 톱을 만들어내자 이를 시기하여 조카를 죽이고 크레테로 도망하여 우두인신(牛頭人神)의 식인 괴물 미노타우로스(Minotaurus)를 위해 미궁(迷宮 labyrinthos)을 지어 주었다.
6. 옷에 윤을 내기 위하여 실제로 올리브유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7. <>안에 든 부분은 원래 필사본들에 없는 것을 볼프(F. A. Wolf)가 아테나이오스(Athenaios 기원후 200년경의 그리스 저술가)에 따라 『오뒷세이아』 4권 17~18행에서 따온 뒤로 다른 편집자들이 이를 따른 것이다.

## 제19권

1. 에우뤼스테우스는 제우스의 아들인 페르세우스의 손자다.
2. ‘그대 자신’이란 여기서 오뒷세우스를 말한다.
3. ‘전투가 끝났을 때’란 뜻이다.
4. 휘페리온은 여기서 태양신 헬리오스의 별명이다. 8권 주8참조.

## 제20권

1. 포세이돈은 트로이아 왕 라오메돈에게서 트로이아 성벽을 쌓아준 보수를 받지 못하자 바다 괴물을 보내 트로이아를 유린하게 하는데, 이에 얽힌 이야기는 5권 주 11참조.
2. ‘헬리케 왕’이란 포세이돈을 말한다. 헬리케에 관해서는 8권 주 4참조.

## 제21권

1. 고대 그리스에서는 탄원자를 해치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2. 그가 만난 이방인들 중 맨 처음이라는 뜻으로, 이것이 왜 특별한 권리를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3. 아켈로오스(Acheloios)는 그리스 북서부 에페이로스(Epeiros)에서 발원하여 아카르나니아와 아이톨리아 지방 사이를 흘러 이오니아 해로 흘러드는 강이다.
4. 개는 파렵치를, 파리는 불굴의 대담성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5. ‘일로스의 들판’이란 트로이아 왕 일로스의 무덤이 있는 들판이란 뜻으로, 트로이아의 남쪽에 있는 언덕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 제22권

1. ‘다르다노스 문’은 스카이아이 문의 다른 이름이다.
2. ‘태백성’의 그리스어는 헤스페로스(hesperos)다.
3. 죽은 자를 난자하는 것은 잔인해 보이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난자당하게 되면 죽은 자의 혼백이 헤코지하지 못한다는 미신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군이 헥토르의 손에 죽은 친구 또는 친척을 위해 피의 복수를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 제23권

1. 고대 그리스에서는 친척이나 친구가 죽으면 장례식 때 애도의 표시로 그리고 성년이 되면 길러준 보답의 표시로, 고향의 강에 머리털을 잘라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고향을 떠나 올 때 아직 어렸기 때문에 머리털을 고향의 하신(河神)에게 바치지 않았던 것이다.
2. 저승을 흐르는 스틱스(styx)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스페르케이오스(Spercheios)강은 텃살리아 지방을 흐르는 강으로 뿔프레스토스(Tymphrestos)산에서 발원하여 멜리스(Melis)만으로 흘러든다.
4. 하데스(Hades)라는 이름은 호메로스에서는 언제나 저승을 다스리는 신(神)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가 다스리는 영토, 즉 저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아폴론은 전에 키클롭스(Kyklops)들을 죽인 죄로 올림포스에서 추방되어 에우멜로스의 아버지 아드메토스(Admetos)밑에서 1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며 그의 가족들을 손수 돌본 적이 있었다.
6. 그 당시 사용하던 전문용어인 듯한데, 문맥상으로 안다리걸기인 것으로 생각된다.
7. ‘안개빛 바다’란 ‘안개 낀 바다’란 뜻이 아니라 ‘아스라한 바다’란 뜻이다.
8. 아폴론

## 제24권

1. ‘주요 인명’중 파리스 참조.
2.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그중 하나는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잘라먹지 못하도록 낚시바늘 바로 위에 빨로 된 튜브가 있는데, 그 빨 위 또는 속에 낚시줄이 물에 잠기도록 납을 달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빨은 작은 물고기 모양의 인공 미끼를 의미하고 납은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많은 야만족들이 먹을 수 있는 미끼를 알기 전에 이런 인공 미끼를 사용했다고 하며 오늘날 낚시에도 송어 낚시에는 이런 인공 미끼가 사용된다.
3. 당시 탄원자는 상대방의 턱을 만졌다.
4. 마카르(Makar)는 아이올로스의 아들로 레스보스 섬의 통치자다.
5. 니오베(Niobe)는 탄탈로스(Tantalos)의 딸로 펠롭스(Pelops)의 누이다. 그녀는 테바이왕 암피온

(Amphion)과 결혼하여 슬하에 7남7녀(또는 6남6녀)의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았으나, 어느 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밖에 낳지 못한 레토 여신보다 자기가 더 위대하다고 자랑하다 두 남매 신의 화살에 자녀를 모두 잃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돌로 변했다고 한다. 일설에 따르면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이 레토 여신에게 기도한 까닭에 살아남았는데 그 딸이 바로 벨레우스와 결혼하여 네스토르의 어머니가 된 클로리스(Chloris ‘과랑게 질린 여자’란 뜻)라고 한다. ‘주요 인명’중 아트레우스 참조.

6. ‘되새기다’라는 말은 나옴베가 돌로 변한 뒤에도 계속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뜻이다.
7. 헬레네가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트로이아가 함락되었다는 말은 호메로스의 양대 서사시의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럴 경우 트로이아가 포위된 지 10년 만에 함락된 것이 확실한 만큼 그리스의 함대를 모으는 데 10년이라는 긴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는 말이 될 것이다. 물론 ‘서사시권 서사시’들 같은 후기 신화에 그리스군이 처음에 트로이아인 줄 잘못 알고 뫼시아에 상륙했다가 도로 귀향하여 10년 뒤에 아울리스 항에 재집결했으나, 트로이아로 출항하기 전에 역풍이 계속 불어 그곳에 오래 붙들려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비록 그리스의 함대 같은 대(大)함대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10년이란 준비 기간은 너무 길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20이란 수는 호메로스에서 흔히 ‘많은’이란 뜻으로 쓰이곤 하는데, 여기서도 20년이란 ‘오랜 세월’이란 뜻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